

'가뭄 속 단비' 나주시-동신대, 농촌 인력난 해소 협력

나주시-동신대·총학생회, 사회공헌활동 협력 업무협약 봉사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 사회공헌활동 관-학 협력

나주시와 동신대학교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 지역사회 상생 활동에 힘을 모은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학생회(회장 강성철)와 농촌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공헌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 이주희 총장, 강성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농촌 봉사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왔으나 총장 취임 후 지역사회와 상생·공유하는 대학을 표방한 이주희

총장의 제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 사회공헌과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확대·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유', '동신대 교직원 및 학생의 농촌봉사 등 사회공헌 참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봉사활동 인정 및 농촌지역 사회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동신대 학생, 교직원들은 올 가을 수확 절부터 농촌 현장에 투입돼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입 정체,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인력 수급에 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인력지원은 지역 농가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농촌 현장에 시야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소통,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동신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협력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농촌 일손에는 보탬이, 학생과 교직원은 보람과 자부심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총장에 이어 강성철 총학생회장도 "지역거점대학임에도 그동안 수동적 활동에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



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송준표기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담양장터', 추석맞이 전 품목 20% 특별할인행사

오늘부터 27일간 전 품목 20%할인...구매 고객 사은행사 진행



담양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오프라인 직매장(담양군 담양읍 면양정로 730)과 온라인 쇼핑몰

(www.damyangmk.kr)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전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기간 내 온라인과 모바일 앱 구매고객 중 10명을 선정하여 2022년 수확된 담양 쌀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담양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600여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순밭은 담양쌀과 전통한과, 주류, 장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치즈돈가스, 쌀 파스타, 요거트, 오란다, 건강보조식품 등 담양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장터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물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가구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장성군이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전국 258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 보건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매

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 추출로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인 885명으로, 조사는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음주, 흡연 등), 코로나

19 관련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이며,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신체계측은 실시하지 않는다. 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통계용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보건사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수용재결 완료

편입토지 324필지 중 80필지 법원 공탁

구례군이 2020년 수해로 인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배수펌프장, 지방하천, 소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군은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24필지(150,545㎡) 중 244필지(127,192㎡)는 1, 2차 보상 협의를 통해 완료됐으며, 미협의 80필지(23,353㎡)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순천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미협의 토지 대부분은 사권이 설정되어 본인이 직접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보상

금 인상을 요구한 토지로 부득이 법원으로 공탁하게 되었다.

한편 군은 올해 1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2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 및 마을 대표를 포함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또한 감정평가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군은 수해 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채택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8월 9일 자료 수용재결을 받았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민원 대기 단축 위해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 도입

곡성군이 민원 처리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민원실은 곡성군 청사 중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총 7개의 팀이 10개의 민원 창구를 통해 각각 산지 및 농지 전용, 개발 행위, 폐기물 인허가, 건축 인허가, 교통, 일반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일일 평균 150명의 민원인이 방문한다.

그러다 보니 창구별로 처리하는 업무가 다르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인이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복잡하여 얽혀 순번 없이 대기하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을 통해 일반 민원(제증명, 민원접수), 토지 건물(제증명), 지방세, 차량 등록, 복합민원(인허가 관련) 등 민

원 사무별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민원인은 터치형 키오스크로 본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 업무 분야의 순번 대기표를 뽑고 모니터를 통해 창구별 호출 번호와 대기인수를 확인할 수 있다. 순번 대기 모니터에는 군정 사업 안내와 주요 관광지 홍보 영상물을 함께 표출해 대기 시간의 무료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작동법을 안내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작은 불편 사항들까지 꼼꼼하게 살펴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